

Vol. 105
2024
SUMMER

열린 충남

권두언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의 새로운 의미

특 집

관광트랜드의 변화와 충남의 특성화 전략
맛있는 충남이 충남관광의 미래다
잠들지 않는 도시! 밤이 더 아름다운 야간경제관광

현안연구

아산시 고려인 청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필요성 검토
충남 지역별 과학기술 현황 조사 및 발전방향 발굴 : 혁신역량 중심으로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권두언

- 04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의 새로운 의미
이인배 | 금산군 정책기획보좌관

특집

- 07 관광트랜드의 변화와 충남의 특성화 전략
안용주 | 前, 선문대학교 국제레저관광학과 교수
- 맛있는 충남이 충남관광의 미래다
이기진 | 충남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본부장
- 잠들지 않는 도시! 밤이 더 아름다운 야간경제관광
김상만 | 대전관광공사 관광사업단 과장

현안연구

- 21 아산시 고려인 청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필요성 검토
윤향희 |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책임연구원
- 충남 지역별 과학기술 현황 조사 및 발전방향 발굴 : 혁신역량 중심으로
김준혁 |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 전문연구원

열린마당

- 31 소도시 시민단체의 시민운동 활로 개척에 대한 제언
: 모두다느린학습자성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정재영 | 홍성YMCA 사무총장

언론이 바라본 충남

- 38 ‘힘센충남’ 버전 II로 업그레이드할 때다
김기룡 | 신아일보 충남취재본부장

로컬이 답이다

- 41 작아도 많고 이어지면 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적협동조합 온어스’
최낙원 | 사회적협동조합 온어스 대표

연구원 소식

- 47 “안정적인 정주체계 구축 위한 충남형 농촌공간정책 마련해야”
“교통약자 없는 대중교통서비스 혁신 방안 마련해야”
디자인으로 그려가는 도민의 삶...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개최
충남연구원, 금산군과 함께 개원 29주년 행사 가져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정책연구활동 결실 맺어

스마트폰으로도
[열린충남]을
만나보세요



2024 SUMMER Vol. 105

04 권두언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의 새로운 의미



07 특집
관광트랜드의 변화와 충남의 특성화 전략
맛있는 충남이 충남관광의 미래다
잠들지 않는 도시! 밤이 더 아름다운 야간경제관광



21 현안연구
아산시 고려인 청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필요성 검토
충남 지역별 과학기술 현황 조사 및 발전방향 발굴:
혁신역량 중심으로



31 열린마당
소도시 시민단체의 시민운동 활로 개척에 대한 제언
: 모두다느린학습자성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38 언론이 바라본 충남
‘힘센충남’ 버전 II 로 업그레이드할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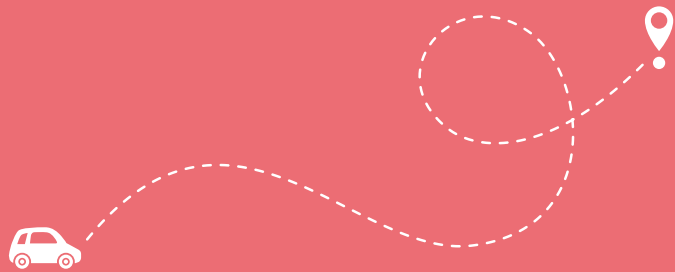
41 로컬이 답이다
작아도 많고 이어지면 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적협동조합 온어스’



발행일 2024년 6월 발행인 오용준 발행처 충남연구원 편집위원장 오용준 편집위원 백운성, 김양중, 김영일, 오혜정, 유학열, 이홍택, 김진수 에디터 정봉희, 김선영
주소 우)32589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금홍동) 전화 041.840.1114 팩스 041.840.1129 홈페이지 www.cni.re.kr 편집제작 천안인쇄주식회사

· 문의사항은 goforit@cni.re.kr로 연락바랍니다.

이인배 —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의 새로운 의미



충남의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백제는 해상왕국으로써 중국과 일본은 물론 동남 아시아까지 국가간에 활발한 국제교류를 하였다. 그 동안에 이러한 백제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하고자 2010년에는 백제문화단지의 완공과 더불어 세계대백제전의 개최와 2010대충청방문의 해 등을 추진하였다.

2002년에는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동해안 중심의 국내에 해양관광 대상지를 서해안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반면에 2007년에는 서해안 태안 앞바다에서의 유류유출사고로 인하여 지역관광산업의 극심한 침체기를 겪는 어려움도 있었다.

또한, 얼마 전까지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로 인하여 관광시장이 급격하게 붕괴되어 지금까지의 우리에게 관광패턴을 변화시켰다. 이와 더불어 관광시장 규모의 축소와 함께 관광수요와 관광소비도 바뀌게 되었다. 이런 관광양상의 변화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생활권 속에서 의료·스포츠·음식·쇼핑관광 등의 다양한 유형과 함께 체험형 및 교육형 관광활동 추세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일상생활과 휴식에서 체험을 기반으로 한 가치소비가 확산되고, 감성 및 스토리텔링에 중점을 둔 여행과 자기계발을 추구하며, 로컬라이프를 선호하는 관광시설과 상품의 개발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인배 |
금산군 정책기획보좌관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3 관광트렌드에서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여행”이라는 모멘트(MOMENT)로 로컬관광(M), 아웃도어 레저여행(O), 농촌여행(M), 친환경여행(E), 체류형 여행(N), 취미여행(T) 등 사회, 여가, 소비, 환경, 노동분야의 주요 변화를 토대로 유망 여행테마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충남은 “2025~26 충남 방문의 해” 사업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자연, 역사, 문화, 생태, 농촌관광 등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충청남도도 주요한 관광자원을 소재로 하여 여행의 핵심테마를 힐링, 캠핑, 해양수변활동 등의 관광수요를 반영하여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운영하는 ‘K-컬처와 관광의 융합’이라는 전략에 맞춘 사업들을 도내 15개의 시·군과 연계시키고 있다. 특히, 현대인들이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숨겨진 관광자원과 축제·이벤트 등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각 시·군들과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공동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그 의미를 더 하며 성공적인 방문의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가 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분야별로 수용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충남은 우선적으로 방문객들을 위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지역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강화함은 물론 방문의 해의 추진 의지가 담긴 선언식과 자원 테마별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충남의 구석구석에 입지하고 있는 관광자원과 연계한 대표적인 관광루트를 관광객들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추고 있다. 그리고 이를 알리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마케팅과 함께 관광시장별로 맞춤형 판촉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는 인구감소 문제와 더불어 지방소멸에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에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다 보니 외부 인구의 유입을 위하여 ‘정주인구’와 ‘생활인구’라는 용어를 도입하고 있다. 생활인구는 인구의 개념 중 ‘이동’에 주목을 하여, 이주는 하지 않지만 관광을 포함하여 타지역에서 살지만 직장근무 등 두 지역 거주하는 사람의 의미를 담은 인구유형을 말하는데, 일본에서는 ‘관계인구’로 불리우고 있다. 사실 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학술적으로는 ‘관광이상 이주미만’이라 범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매력적인 하나의 지역에 반복되는 방문을 통하여 지방으로 이주까지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면 일시적인 방문객 즉, 생활인구도 또 다른 인구소멸의 대응방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가정책차원 뿐만 아니라 각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으로의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다양한 시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민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30여 년전에 금산의 서대산이 품은 보곡산골 산벚꽃축제를 방문하였다. 그 이후로 이곳을 자주 찾다가 지금은 정년퇴직을 하고 산꽃마을로 귀촌하여 마을주민으로 정착하였다. 이제는 시골과 아름다운 자연을 향시 즐기면서 살고 있는데, 돌이켜 보면 나도 일시적 방문객의 생활인구에서 정주인구가 된 예가 아닌가 싶다. 더불어 이웃하고 있는 주변 마을을

살펴보더라도 고향을 방문하거나 여행지로 여러차례 방문하다가 이주를 하고, 정착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곤 한다. 이같이 생활인구가 장기적으로는 정주민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생각이 혼자서 만들어 낸 착각일까?

이제는 관광이 지역을 방문하여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일시적인 방문객 즉, 생활인구가 아니라 ‘착한관광’·‘공정관광’과 같이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속에서 지역주민들의 삶과 문화를 만나면서 몸과 마음이 힐링되고 치유되어 평생을 살고 싶어하는 정주민구가 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지역방문의 해 사업이 시작된 이래 20년, 이제 성년으로 성장하였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엔데믹 이후 관광수요는 증가했지만 관광패턴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충남에서는 2026안면도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화된 현대인들의 관광수요와 취향을 만족시키는 “2025~26 충남 방문의 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광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관광충남을 통한 생활인구 유치로 지방소멸의 해법이 될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힘찬 응원과 함께 도약을 기대한다.

특 집



관광트렌드의 변화와 충남의 특성화 전략
맛있는 충남이 충남관광의 미래다
잠들지 않는 도시! 밤이 더 아름다운 야간경제관광



관광트랜드의 변화와 충남의 특성화 전략

안용주 | 前, 선문대학교 국제레저관광학과 교수

들어가기

한국관광공사는 2024년 관광트랜드 전망 및 분석보고서(2023.12)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관광트랜드는 ROUTE로 대표된다고 한다.

Relax and empty your mind (쉬이 있는 여행), One point Travel (원포인트 여행), Undiscovered Place (나만의 명소여행), Travel Tech (스마트기술 기반 여행), Easy access for everyone (모두에게 열린여행)이 그것이다. 조사기간은 소셜데이터 (2020년 1월 1일 ~ 2023년 7월 31일까지 약 3년 7개월), 관광객 설문조사(2023년 11월 14일 ~ 2023년 11월 20일, 유효 표본 수 1,000명)으로 진행됐다. 전년도 2023년도 관광트랜드는 MOMENT로 발표했다. Meet the local(로컬관광), Outdoor/leisure travel(아웃도어·레저여행), Memorable time in rural area(농촌여행), Eco-friendly travel(친환경 여행), Need for longer stay(체류형 여행), Trip to enjoy hobbies (취미여행)이 그것이다. 조사기간은 소셜데이터(2019년 10월 ~ 2022년 9월), 관광객 설문조사(온라인 : 2022년 11월 24일 ~ 12월 2일, 오프라인 : 2022년 11월 24일 ~ 12월 9일, 표본수 1,003명)으로 진행됐다.

통계는 설문자의 답변을 토대로, 한 시점의 사회적·환경적·경제적 분야 등과의 오버랩을 통해 다가 올 시점에서의 관광변화를 예측하는 한 방법이지만, 분석자료와 분석방법은 대동소이한데도 매년 관광트랜드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계의 여행자 전망

American Express Travel이 발행한 2024 Global Travel Trends Report에서는 People are traveling to make memories in 2024. 라며 여행의 동인(動因)에 대한 매우 중요한 키워드에 대해 언급했다. 사람을 움직이는 동인(motivation)을 “추억만들기(to make memories)”라고 지정한 것이다. 여행을 위한 방법, 여행의 형태 등은 조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여행(旅行)을 하고자 하는 기저(基底)에는 기억(memories)의 단편을 만들고자 하는 욕망 해소라는 근본적인 욕구(慾求)가 있다는 것이 매우 의미심장(very meaningful)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84%가 지난해에 비해 더 많거나 같은 금액의 경비를 지불할 용의가 있고, 89%는 비수기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등의 꿀팁(travel hacks)을 활용한 경비절약을, 77%는 여행 비용보다 올바른 여행경험(right travel experience)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올바른 여행경험에 대한 응답에서는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 1981년~2012년 사이에 태어난 응답자의 응답이 79%, GENX 1965년~1980년 사이에 태어난 응답자가 75%, 베이비붐 세대 1946년~1964년 사이에 태어난 응답자가 72%의 응답으로 나타났다. 이런 응답 가운데 눈에 띄는 주제가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다. 전 세계 응답자의 약 3/4이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73%의 응답자가 자신을 스포츠의 광대한 팬(huge fan) 혹은 일반 팬(casual fan)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38%는 평균 6시간 이상의 이동을 감수할 수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거실에서 쉽게 시청할 수 있는 스포츠를 벗어나서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 팀을 직접 관람하는 것(35%), 대규모 스포츠나 문화행사를 관람하는 것(34%), 좋아하는 운동선수를 보는 것(20%)이 포함된 응답이다. 이런 응답을 통해 세대의 변화는 여행의 트렌드를 관광(觀光, sightseeing)이 아닌 직접체험(direct experience)에 대해 시간과 코스트를 지불할 용의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Wynn Las Vegas 회장인 Steve Weitman은 이에 대해 라스베가스가 몇 년간 투자한 프로 스포츠의 확산과 상징적인 스포츠 순간이 라스베가스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면서 럭셔리하고 경험 기반의 여행에 집중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제공했고, 이 같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시 전체로 확대하면서 이벤트에 다른 여행객이 라스베가스를 놓칠 수 없는 목적지(destination)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의 변화는 특별한 이벤트 혹은 위시 리스트에 있는 꿈의 목적지를 위한 여행, 즉 갈라파고스제도 여행이나 고릴라와 함께하는 트레킹 같은 탐험 스타일의 모험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이다. 응답자의 72%는 친구들과 외출하는데 돈을 쓰기보다는 주요 여행을 위해 돈을 저축하는 것을 선택했다. 66%의 응답자가 이런 여행을 위해 저축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일부 응답자들은 몰입형 모험(immersive adventure), 새롭고 다양한 경험(new and diverse experiences)에 관심을 보였다.

시대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솔로 활동(going solo)의 일반화다. 깊은 휴식,

새로운 관심사 개발,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에 가장 좋은 방법이 혼행(홀로 여행하는 행위)이다. 혼행은 ① 일정 결정이 손쉽고 ② 원하는 목적지에 대한 적확(的確)한 맞춤화가 가능하며 ③ 여행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 시간과 경비 효율성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작용한다. 전세계 응답자의 57%가 솔로 여행할 가능성에 동의하고 있다.

혼행을 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는 ㉔ 나 자신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To treat for myself) ㉕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To reconnect with myself) ㉖ 복잡한 일상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To get a break from chaotic daily life) ㉗ 독립하는 것을 좋아해서(I like to be independent) ㉘ 친구·파트너·가족이 부재중이라서(If my friends/partner/family aren't available) ㉙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To meet new people) ㉚ 내가 원하는 꿈의 여행을 계획하기 위해서(To plan a dream trip exactly how I want to) ㉛ 친구·파트너·가족은 여행에 대한 관심사가 나와 달라서(My friends/partner/family are different travel interests as me) ㉜ 새로운 취미를 시도해 보려고(To try a new hobby) ㉝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To take part in activities with like-minded people) ㉞ 내 인생의 중요한 사건을 축하하기 위해서(To celebrate a major life event)(승진, 퇴직 등)라고 답했다.

트렌드와 정책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은 관광을 정의(定意, definition)하고자 함이다. 정의를 통해 사고(思考)의 표상을 규정할 수 있고, 정책으로 개발할 수 있다.

관광정책을 상징화하기 위해서는 분석보고서를 위한 시대적 트렌드에 천착할 수도 있지만, 이런 트렌드는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한方便(方便)으로 삼는 것은 추천하지만, 종종 관광트렌드 분석보고서를 금과옥조(golden rule)로 받아들이는 우(愚)를 범하기도 한다.

2023년 관광트렌드에서 전망한 트렌드는 MOMENT였다. Meet the local 로컬관광), Outdoor/leisure travel(아웃도어·레저여행), Memorable time in rural area(농촌 여행), Eco-friendly travel(친환경 여행), Need for longer stay(체류형 여행), Trip to enjoy hobbies(취미여행)의 여섯가지를 특징지었다. 글로벌 팬데믹(코로나19)으로 인한 행동반경의 제한은 폭발적인 아웃도어형 여행과 소인수 여행, 자연친화형 관광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소멸이라는 화두와 더불어 농촌여행, 로컬관광, 친환경, 아웃도어라는 키워드로 정의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2024년 관광트렌드는 ROUTE로 소개했다. 힐링과 치유, OTP를 통한 스마트관광 증가하는 솔로 여행 등은 시대적·환경적 상황이 만들어 낸 당연한 귀결이다. 이는

전년도의 트렌드에 상징성의 관점을 변형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모두에게 열린여행(Easy access for everyone) 또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에 대한 요구가 이미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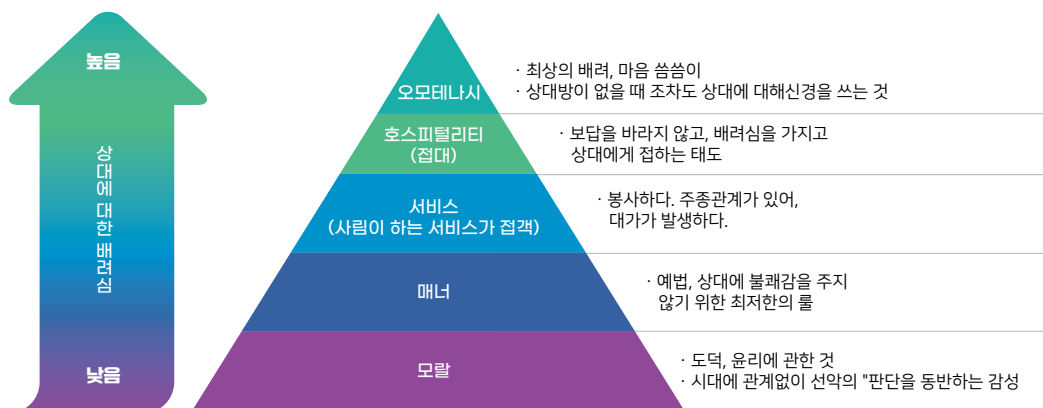
중요한 것은 관광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시대적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트렌드에 지나치게 몰입함으로써 자신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전국이 동일한 콘셉트로 '정책이 복사'되어 비슷비슷한 콘셉트의 관광상품이 개발되는 것은 매우 지양해야 할 부분이다.

충남은 제7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2022~2026), 서해안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구축 용역(2023) 등을 통해 꾸준히 충남의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연구와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충남의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전략수립에 노력하고 있지만, 충남만의 독자적인 특성을 반영한 관광정책이 부재한 것 또한 현실이다.

또 하나는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일본이 펼치는 '오모테나시 마인드'의 확산이 충남에는 좀처럼 정착 및 확산되지 않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일본의 오모테나시 마인드는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 마인드와 동일한 콘셉트의 일본식 표현이다.

충남형 오모테나시 서비스 정착화

오모테나시 서비스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용어(用語)가 갖는 의미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인이 가장 신뢰하는 국어사전 『広辞苑』에 따르면 "손님이나 소중한 사람에 대한 마음 씀씀이 혹은 배려"라고 해설하고 있다. 또 하나는 '겔'을 의미하는 오모테(表)와 '속'을 의미하는 우라(裏)에 '없다(無し)'라는 의미가 붙어서 "겔과 속이 다르지 않은 마음(心)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오모테나시 서비스에는 매너(manners:예의)와 서비스(service:서비스를 받는 측, 즉 손님이 주인(主人)이 되고, 접객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이 종(從)이 되는 관계. 주종(主從) 관계)가 포함된



[그림] 일본이 생각하는 오모테나시 서비스의 정의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service) 마인드에서 진일보(進一步)한 개념이 호스피털리티(hospitality)로 “환대(歡待, 반겨서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의 의미다. 이를 일본이 자랑하는 오모테나시 서비스로 도형화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즉, ‘오모테나시’ 서비스란, “상대방이 기대하는 그 기대(期待) 이상의 정성을 다해 환대하는 것”을 가리킨다. ‘기대한 만큼 VS 기대 이상’이 충남이 만든 모든 관광상품에 그 이상의 의미를 더함으로서 충남 방문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관광정책 입안자가 주의할 점은 관광정책의 성공여부는 1회성 방문의 대폭증가가 아니라 재방문율이 얼마나 높은가에 방점을 두고 관찰해야 하지만, 지자체 담당자의 특성상 일회성(一回性) 방문에 지나친 무게를 두는 것은 늘 불만이다.

앞에서 ‘호행’에 대한 11가지의 응답결과와 일본의 관광정책에 함의(含意)되어 있는 ‘오모테나시’ 문화에 대해 소개했다. 이는 관광정책 입안자가 어떤 부분에 방점(傍點) 둘 것인지에 따라 충남의 관광상품은 매우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기 위함이며, 지역마다 주목(attention)하는 부분이 달라져야 지역 특성이 반영된 충남 고유의 매력의 담겨있는 관광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참고문헌>

- American Express Travel's (2023), 2024 Global Travel Trends Report
 한국관광공사(2023.1), 2023 관광트렌드 전망 설문조사 및 데이터 종합분석 -통합보고서-
 한국관광공사(2023.12), 2024 관광트렌드 전망 및 분석 보고서 -통합보고서-
 진보라(2022),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 2023-2025, 한국관광정책2022
 박주영(2019), 2020-2024 한국관광 트렌드 전망, 한국관광정책 2019 winter No.78
 안희재(2014), 최근 관광트렌드 변화와 전망, 한국관광정책2015 Spring No.59
 안용주(2024), 지속가능 해양종합관리를 위한 이용자 중심 해양공간 지정에 관한 연구:충남지역 해양공간 관리구역 설정을 중심으로, 해양관광학연구 15(1), 한국해양관광학회
 안용주(2023),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포항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 롯데JTB/한국해양관광학회 크루즈 선상심포지엄 발표자료, 한국해양관광학회
 안용주(2022), 제7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선문대학교산학협력단
 안용주(2019), 관광을 통한 지역만들기 성공 사례집:일본편, 선문대학교출판부
 안용주(2019), 충청남도 크루즈관광 활성화 방안, 충청남도 크루즈산업 육성방안 세미나 발표자료, 충남연구원

1) 1981년~2012년 사이에 태어난 응답자
 2) 1981년~2012년 사이에 태어난 응답자
 3) 1946년~1964년 사이에 태어난 응답자

특집

02

맛있는 충남이 충남관광의 미래다

이기진 | 충남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본부장

지난해 11월 충남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하기 전 33년 3개월 동안 기자생활을 했다. 기자생활 동안 나에게 늘 따라다니던 닉네임이 있었다. '요리하는 기자'다.

2003년 한식조리기능사에 합격한 데 이어 양식과 중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잇달아 취득하자 이 같은 별명이 붙었다. 당시 인기를 끌었던 TV드라마 '대장금'을 본 때 한국기자협회가 발행하는 '기자협회보'에서는 필자를 "언론계에 대장금이 나타났다"며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당시 피필자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어떻게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나?", "집에서도 요리를 하느냐?"는 내용이었다. 물론 2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집에서 요리를 자주 한다. 그렇다면 난 왜 조리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는가?

몇 개월 전 서울관광재단의 길기연 대표를 만난 적이 있다. 충남 금산 출신인 그는 "충남에서 먹는 해산물이 전국에서 가장 맛있는 것 같다"고 했다. 난 쟁쟁하게 말꼬리를 잡고 "그 이유를 아시느냐?"고 했다. 호기심과 궁금함이 가득한 표정으로 내 눈을 응시했다.

나의 답변은 이랬다. "아마 충남에서 드신 해산물은 제철에 나온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다리과 갑오징어, 꽃게는 봄, 여름에는 바지락과 붕장어, 가을에는 대하나 소라, 겨울에는 새조개와 굴 등이었을 겁니다. 갯벌이 발달하고 플랑크톤이 풍부한 서해에서 잡히는 제철 수산물은 다양하고 최고의 맛을 자랑하지요."

어찌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본격 요리를 시작한 것은 어렸을 때 바닷가(충남 보령시 청소면 신송리와 홍성군 광천읍 웅암리)에서 살았던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갯벌을 파헤쳐 조개를 잡고, 게 구멍을 파고 들어가서 칠게를 잡았다. 운 좋으면 대합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겨울에는 차디찬 바닷바람을 쐬며 바위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석화를 따서 짭조름한 굴을 입안에 넣었다. 여기저기 갯벌 위에 흩어져 있는 김이나 파래도 끓여모아 우물물로 바작바작하게 씻어 간장으로 버무려 먹기도 했다.



공주 마곡사서울식당 정식

하지만, 세월이 흘러 우리의 식탁은 변했다.

외국산 음식 재료가 물밀 듯 들어오고 토종과 외산의 구분조차 쉽지 않은 밥상이다. 가장 로컬스러운 게 가장 글로벌인 것을 알면서도 이제 우리의 것만을 고집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음식을 기반으로 한 관광, 즉 미식관광(Food tourism)이나 미각관광이 뜨는 이유다. 미식관광은 가장 지역적이면서도 다른 지역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오는 조리법 등이 음식에 고스란히 배어 있어 매력적인 관광상품이 되고 있다.

필자가 요리를 하게 된 이유도, 그리고 관광과 축제를 공부해 관광경영학 박사를 취득한 뒤 음식을 던낸 이유도 바로 가장 지역적인 음식으로 관광과 축제를 띄워보자는 취지에서다.

충남의 자연환경에 알맞게 서식해온 살아있는 것들, 이를테면 해산물이나 육류 등을 가장 충남스럽게 가공하고, 조리하고, 스토리텔링하고, 내놓는 것이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 전략이라고 자신했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2025~2026년 2년 동안을 '충남 방문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전략과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충남이면 충분해'라는 슬로건으로 2025년 4,000만 명, 2026년 5,000만 명의 관광객을 충남으로 유치하겠다는 당찬 포부도 세워놓고 있다.

이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전략이 수립되고 있지만 본인은 무엇보다 미식관광이 즉각적이고 눈에 띄는 성과를 약속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외식사업가 백종원 씨가 기획한 예산중앙시장이다. 이유야 어쨌든 과거 사람들이 제대로 찾지 않았던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이 2022년 음식을 테마로 한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하면서 예산지역은 확 달라졌다. 전체 외부 방문객은 2023년 2월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26.3% 증가했다. 이는 충남도 15개 시군의 평균 증가율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다. (출처 : 한국관광데이터랩)



충남 서해안 해물전골



홍성한우



광천 토굴새우젓



공주 새이학가는 장국밥



충남 금산 도리뱅뱅이

특히 같은 기간 '충남 관광지 내비게이션 검색순위 TOP 30'에서는 예산의 중앙시장, 예당호 출렁다리, 수덕사, 예당호 모노레일 이 포함되면서 중앙시장으로 음식을 먹기 위해 방문했다가 주변 관광지를 함께 방문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후 충남을 비롯한 타 시도 전통시장은 물론 축제까지도 백 씨에게 의뢰하면서 몸값이 치솟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 먼저 시도됐다.

목포시는 2019년 4월 '맛의 도시 목포'를 선포하고 KBS 프로그램인 '한국인의 밥상' 최불암 선생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 발 빠르게 미각 도시임을 인정받으려 했다. 광주광역시도 '미향(味鄉)도시' 선포식(2021.3), 강릉시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선포(2021.8), 강원 정선군은 맛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2021.9). 수원시는 숙박점과 음식점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에 착수했고(2022), 전북 순창군은 음식관광산업 활성화 3개 분야 10대 시책 추진을 발표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음식을 통한 관광 진흥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음식 관광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사업추진에 공간 제약 없고 △농어촌에서부터 도시까지 다양한 서비스 상품 개발이 가능하며 △기후나 자연재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지역 음식 관광은 차별성과 매력성,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어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음식에 대한 만족도는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재방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이템이다.

여행에서 눈으로 본 것은 영상으로 다시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여행에서 입으로 겪은 맛의 기억은 다시 입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다. 즉 눈으로 느낀 것은 다시 그곳에 가지 않아도 재현이 가능하지만, 혀로 느낀 것을 다시 느끼기 위해선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는 음식을 활용한 관광진흥 정책은 음식 관련 축제와 이벤트는 물론 현지 노포 맛집, 유명셰프를 앞세운 팬덤 여행, 쿠킹 클래스, 맛집 책자 및 지도제작, 프로그램 개발 등 범위를 가리지 않고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 공주 부여 익산이 2023년 진행한 ‘백제노포맛집투어’ 상품이 폭발적인 인기를 끈 사례가 대표적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충남 방문의 해를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동안 ‘방문의 해’ 사업을 진행했던 기존 광역자치단체는 사업의 명확성과 차별성 부족으로 관광객 유치 성과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다보니 사업의 예산 규모나 투입한 인력 등에 비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엔 그야말로 가성비가 떨어졌다.

이에 따라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방문의 해 사업 성공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바로 미식관광이다.

각종 조사 결과 관광객 여행목적 1순위는 식음료 활동 등 미식관광이다. 지난해 충남문화관광재단이 도 방문객 및 잠재 관광객의 검색순위 조사 결과 1위로 ‘미식’이 꼽혔으며, 방문객 소비지출도 역시 식음료업이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과 농수산물 생산자 및 지역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2023 문화체육관광부 해외 한류 실태 조사 결과에서는 K-food(13.2%)에 대한 관심이 K-pop(14.3%)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 UAE는 K-pop보다 K-food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은 △서해안지역 수산물을 중심으로 풍부한 먹을거리 △백제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향토음식 및 노포(老鋪) 맛집 △천안-아산권의 MZ세대 선호하는 카페 및 베이커리가 산재해 있고, 각 농촌 지역은 농수산물야 1차 산업과 6차 산업 부문이 조화돼 있어 음식 콘텐츠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 같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경우 최근 여행 트렌드로 급부상한 미식 관광 수요에 대비한 정보 구축 및 스토리텔링, 특화 프로그램 등이 부족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콘트롤 타워, 시군간 연계, 인프라 등이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충남의 미식 관광 적합성을 알리기 위한 브랜드 개발과 홍보, 다양한 정보 및 기반시설 구축으로 ‘맛있는 충남, 맛이 총만한 충남, 음식 먹으러 가기 좋은 충남’이라는 인식 확산 노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충남도와 일선 시군, 민간영역이 미식 트렌드에 맞는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충남 음식 자원을 결합한 ‘C-미식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음식을 통한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맛있는 충남’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단계로 음식 정보 기반을 구축하고, 2단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 3단계 음식 관련 축제 특성화, 4단계 시군연계사업의 추진 등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과감한 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맛있는 충남’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



잠들지 않는 도시! 밤이 더 아름다운 야간경제·관광!!!

김상만 | 대전관광공사 관광사업단 과장

주 52시간 근로제의 도입으로 여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여가란 일하고 남은 시간, 온전히 자신을 위한 자유시간을 말하며, 스포츠, 취미, 휴양, 문화예술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문화예술, 스포츠, 오락 서비스를 포함하는 여가 서비스 시장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국민소득의 증가와 여가에 대한 인식의 확산은 여가소비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켜 여가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퇴근 후 여가활동의 대세는 집에서 TV시청 이었다. 하지만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퇴근 후 휴식 보다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기 시작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핵심은 평일 저녁시간의 변화를 의미하며, 건강관리, 스포츠, 문화, 취미, 교육, 여행, 휴식, 생활, 뷰티 등 다양한 분야의 여가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여가활동은 평일 저녁 여가시간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2030세대 등 비교적 젊은 층에서 주도하고 있다. 이렇듯 주 52시간 근무제는 활용시간의 증가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활용시간의 증가는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점진적으로 24시간 활용 사회로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2년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되었으며, 1987년부터는 네온사인 금지가 해제 되면서 잠들지 않는 도시로 진입하였다. 1988년 5월 서울 송파구에 우리나라 최초로 24시간 편의점이 개점하면서 새로운 야간생활(Night Life)의 시작을 알렸다. 1998년 심야영업 규제를 폐지하면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24시간 도시로 진입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24시간 비즈니스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90년대 야간생활은 과중한 업무와 잦은 야간 근무시간 이후 남은 짧은 여가시간을 단시간에 즐길 수 있는 술, 향락 중심의 소비성 여가문화로 야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2000년대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음식점과 술집, 찜질방, 카페 등

각종 비즈니스가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공무원에게 도시의 야간은 성범죄, 소음 등을 연상시켜 여전히 도피, 두려움, 불안, 무질서 등의 부정적 이미지로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24시간 운영하는 헬스장과 미용실, 네일숍, 세탁소, 어린이집이 등장하는 등 24시간 비즈니스는 낮에 처리할 수 없었던 일을 마무리 하거나, 개인의 취미생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되면서 야간생활은 긍정적 이미지로 변하고 있다.

또한, 세계의 대도시는 24시간 도시로 뉴욕과 같이 잠들지 않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영국 런던은 24시간 도시를 위해 야간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야간시장제(Night Czar)를 도입하여 야간경제(Night Time Economy)와 음악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두면서 시민, 지역정부, 야간시설간의 상호작용 촉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초대 야간시장(Night Czar)인 에이미 라메(Amy Lame)는 야간시장의 역할을 “런던의 문화가치를 옹호하고 런던의 야간경제를 발전시키고 다양화 할 뿐만 아니라 런던을 24시간 도시로 형성하기 위한 창조적인 일”로 말하고 있다.

영국 런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67%는 야간활동을 하며, 밤 11시에 잠자리에 드는 비율은 54%, 자정(밤 12시)에 잠자리에 드는 비율은 24%로 런던 역시 잠들지 않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런던은 금요일과 토요일에 자정(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행하는 나이트 튜브(Night Tube, 지하철)를 운행함으로써, 야간에 일하는 사람, 야간을 즐기는 사람, 야간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대중교통을 통한 편의를 제공하여 24시간 도시로 더욱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하게 야간을 즐길 수 있는 야간경제구역인 퍼플플래그(Purple Flag)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 전역에 70여개의 야간경제구역이 선정되어 잠들지 않는 도시를 만들고 있다.

야간경제는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경제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오후 6시부터 자정(밤 12시)까지를 ‘저녁경제(Evening economy)’로, 자정(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심야경제(Late-night economy)’로 구분하고 있다(Sound Diplomacy, 2018). ‘잠들지 않는 도시’로 유명한 뉴욕의 야간경제는 ‘오후 6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하는 활동’으로 정의하며, 뉴욕시의 Nightlife economy 영향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예술(Arts), 주류(Bars), 음식(Food service), 스포츠 활동(Sports and Recreation), 음악활동 장소(Venues)의 5개의 하위 야간산업 범주를 통해 정의하고 있다(NYC Media and Entertainment, 2019). 또한, 호주에서의 야간경제는 주류(Drink),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음식(Food)의 3개 분야의 시설(Establishment), 고용(Employment), 매출(Sales turnover)을 중심으로 경제효과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호주의 야간경제는 ‘Early evening(오후 6시 ~ 오후 9시)’, ‘Evening(오후 9시 ~ 오후 11시)’, ‘Night(오후 11시 ~ 오전 2시)’, ‘Late night(오전 2시 ~ 오전 6시)’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NSW, 2018).

야간경제를 이루는 주체, 즉 이해관계자는 크게 밤을 즐기는(소비하는) 그룹(Enjoy the

Night), 밤에 일하는 그룹(Work at Night) 그리고 밤을 관리하는 그룹(Manage the Night)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밤을 즐기는(소비하는) 그룹은 콘서트 관람객, 클러버, 외식하는 사람들, 극장 관람객, 야간 스포츠 참여 및 관람객, 야간 헬스를 이용하는 사람 등 일반 시민과 밤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다. 밤에 일하는 그룹은 야간 경비원, 바텐더, 대중교통 종사자, 환대산업 근로자, 그리고 공연, 예술, 영화, 음악, 건축과 같은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 종사자들이다. 밤을 관리하는 그룹은 경찰, 소방, 의료, 보안산업 종사자와 시청과 같은 지방정부 등이다(Sound Diplomacy, 2018).

야간경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3가지 관점으로 분류하자면, 첫 번째는 야간경제의 하드웨어적 관점이다. 야간경제 활동을 위한 야간 인프라 확장 및 개선을 통해 안전한 야간경제를 지원하는 분야이다. 예를 들면, 도시에서 야간 교통 서비스를 확장하거나 밤에 문을 여는 공중화장실과 더욱 밝은 조명 설치 및 CCTV 추가 설치와 같은 기본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말한다. 두 번째는 야간경제의 소프트웨어적 관점이다. 야간 관광, 야간 축제, 야간 이벤트, 야간 행사 등 야간을 즐길 수 있는 문화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야간경제는 소비를 넘어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는 문화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박물관, 갤러리, 도서관, 문화재 등의 폐장시간을 연장하여 늦은 밤에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야간경제의 거버넌스 관점이다. 안전하고, 활발하며 다양한 야간경제를 관리하는 분야이다. 야간경제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와 중재, 그리고 정책 결정은 중요한 요소이다. 야간 인프라와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도시마다 크게 다르지만 이러한 전략을 수립하고 구현을 감독하는 야간경제 거버넌스 구조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야간경제를 관리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세계적으로 20개국 40개 이상의 도시가 야간시장(Night Mayor) 제도의 도입을 통한 야간의 체계적 관리이다. 낮은 일을 위한 시간이며, 밤은 재미를 위한 시간인 것이다. 재미와 즐거움이 가득한 야간을 느끼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편리함을 제공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민 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새로운 야간직업의 등장으로 야간 고용창출의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 창의적이고 안전하며 편리한 야간의 즐거움과 재미를 원한다면 야간관광이 야간경제의 핵심이 될 것이다.

활기차고 다양한 24시간 서비스는 국내외 관광을 유치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면, 호주를 방문하는 해외 방문객의 절반 이상과 비즈니스 방문객의 3분의 2가 시드니를 방문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드니에 이처럼 많은 국내외 방문객을 유인하는 것은 비비드 시드니(Vivid Sydney)와 같은 야간관광 때문일 것이다.

비비드 시드니는 호주 최대 규모의 행사로, 빛(Light), 음악(Music), 아이디어(Idea), 음식(Food)를 주제로 열리는 축제이다. 2024년 비비드 시드니는 14번째 행사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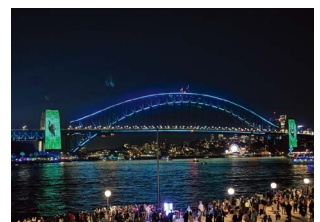


사진 : 김상만, 2024년
Vivid Sydney

2023년 비비드 시드니는 23일동안 348만명의 방문객이 찾았으며, 2억610만 달러의 방문객 지출을 이끌어 냈다(Destination NSW ANNUAL REPORT 2022-2023). 이러한 비비드 시드니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중앙역까지 57개의 조명 예술 설치물과 3D 프로젝션을 8.5km에 걸쳐, 비비드 시드니 라이트 워크(Vivid Sydney Light Walk)를 조성해 많은 사람들이 빛을 즐길수 있게 했으며, 음악 프로그램은 도시 중심지를 중심으로 14개 장소에서 67개 공연과 콘서트를 진행했다. 또한, ICC Sydney를 포함한 9개 장소에서 이루어진 비비드 아이디어는 218명의 강연자와 38개의 이벤트로 이루어졌다. 특히나 2023년 처음으로 음식(Vivid Food)을 축제 주제에 포함시켜 음식관광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비비드 푸드의 하이라이트는 연기와 불을 주제로 한 Fire Kitchen으로 길가에 무대를 조성해 국내외 유명 셰프들이 현장에서 요리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19만명의 관람객을 모았다. 비비드 시드니라는 야간관광을 통해 대중교통 연장운행,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 제공 그리고 상가의 영업시간 연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야간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고 있다. 전통적인 인바운드 관광 비수기인 시드니의 5월과 6월을 가장 바쁜 시기로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방문객의 소비·지출을 통해서 직간접적인 경제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야간관광 콘텐츠는 비비드 시드니와 같은 야간형 축제, 싱가포르의 가든스 바이 더 베이와 같은 야간 정원관광, 홍콩의 '심포니 오브 라이트', 두바이의 음악분수, 불꽃축제, 라스베이거스의 새로운 랜드마크 '스피어(sphere)' 등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야간관광 콘텐츠는 관광객을 체류형으로 이끌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

충청남도는 2020년 대한민국 야간관광 100선에 '궁남지', '정림사지', '서산해미읍성', '예당호 출렁다리' 총 4개소가 선정 되었으나, 2023년 "밤이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 야간관광 공식 브랜드인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는 '간월도 해양경관 탐방로', '궁남지', '남당항 해양공원 음악분수', '부여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삼교호관광지 대관람차', '서산해미읍성', '예당호 출렁다리와 음악분수', '합덕제' 총 8개소가 선정되면서 발 빠르게 체류형 관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공주시, 부여군을 포함한 7개 지역에서 2023년 문화유산 야행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백제문화제, 보령 머드축제 또한 야간 콘텐츠를 강화하며 야간형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에는 공주시가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되면서 충청남도는 "밤이 더 아름다운 충남"으로 변화하고 있다. 야간에 대한 관심과 투자, 인식의 변화는 체류형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인구 증대에 따른 지역소멸 문제 대응, 새로운 야간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을 위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찾고싶은 야간관광의 중심지 "충청남도"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현안 연구



아산시 고려인 청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필요성 검토
충남 지역별 과학기술 현황 조사 및 발전방향 발굴 :
혁신역량 중심으로

아산시 고려인 청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필요성 검토

윤향희 |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책임연구원

재외동포 고려인

재외동포는 재외동포기본법에 의해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이에 해당된다. 재외동포 중 고려인은 소련 붕괴 후 구소련지역 즉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한 민족을 뜻한다. 이들은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민족 동포이며 1860년 두만강 근처에서 거주하던 한인이 러시아 극동지방 연해주로 이주하면서 고려인의 이주가 시작되었다. 19세기 중엽부터 광복까지 러시아와 구소련지역으로 이주한 자와 그들의 친족을 고려인이라고 한다. 고려인은 소련의 붕괴로 인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15개 공화국에서 나뉘어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으며 1992년 이후 이들의 한국 입국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아산시 체류 재외동포는 2023년 기준 25,31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외동포 중 고려인은 주로 가족 단위의 이주가 이루어지며 자녀를 동반하여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아산시 체류 고려인의 연령은 30대, 40대, 50대, 60대, 20대 순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아산시에서 고려인 청년으로 20대, 30대라 할 수 있다. 이에 아산시 고려인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을 위해 아산시 고려인의 체류 형태 등의 파악으로 아산시 체류 고려인 청년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을 통해 아산시 체류 고려인 청년의 니즈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산시 고려인 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아산시 고려인의 유입 및 현황

아산시로 고려인의 유입은 잘 발달된 도로망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영향으로 자동차 부품, 제약, 전자, 제과 생수 등 다양한 종류의 기업체가 자리하고 있고 이들 기업체는 유망, 우량한 기업이며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듯 아산시에 대단위 공업단지의 조성으로 아산시의 외국인의 체류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산시의 신창면과 둔포면은 고려인 밀집지역이 형성되어 고려인이 대거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다.

고려인의 체류 형태는 입국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최초 한국 입국 시 이들의 체류자격은 재외동포(F-4)가 아닌 경우 유학(D-2), 어학연수(D-4), 방문동거(F-1), 유학(D-2), 어학연수(D-4), 거주(F-2), 영주(F-5), 방문취업(H-2) 등으로 체류 한 후 체류자격 변경을 한 후 재외동포(F-4)로 변경하여 지속 체류를 하고 있다. 재외동포 고려인의 체류자격은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이며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은 방문동거(F-1)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다.

충청남도 체류 고려인은 12,316명으로 추계할 수 있다. 이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체류자격별 분류와 외국 국적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한국계러시아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의 외국국적동포(F-4)의 체류자격이 가장 많고 이들의 국적으로 고려인을 추정한 충청남도 아산시 고려인은 8,294명이다.

구분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근거법률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1999년 12월 시행)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7년 3월 시행) - 출입국관리법(2007년 3월 시행)
대상	- 외국국적 동포 4세대 이후까지 재외 동포(F-4) 사증 발급	- 중국, 구소련지역(CIS)에 거주한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 4세대 이후까지 방문취업(H-2) 사증발급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체류기간 상한	- 제한없음(3년 단위로 계속 연장 가능)	- 최장 4년 10개월까지만 체류(최초 3년 체류 허가 후 1년 10개월 연장)
외국인등록 (거소신고)	- 국내 거소신고증 발급대상(거소신고는 임의사항임)	- 외국인등록증 발급 대상 (90일 이산 체류 시 외국인등록 의무)
취업가능 여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2 제3항에 따라 재외 동포의 활동제한 범위 고시 사항을 제외하고 취업가능(단순노무 직업 및 시행행위 등 제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 2에 따라 46개 산업분야에서 취업가능(단순노무 업종에 한해 허용)
취업절차	- 제한없음(내국인과 동일)	- 법무부: 최초 고용 취업개시 사실,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 변경 등 15일 이내 신고 - 고용부: 취업교육, 구직신청 등 “외국인고용법” 특례 고용절차에 따라 취업 가능

< 표 1 >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 비교

출처: 하이코리아(2024)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은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아산시의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근로를 하여 경제력을 확보하고 있다.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인의 가족 단위의 집단 거주로 구성원은 부부, 부부와 자녀, 부부와 부모, 부부와 부모, 자녀 등으로 구성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하며 생활하고 서로 어우러져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자녀의 체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의 보육 및 교육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모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 부족으로 자녀의 보육 및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향으로 고려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고려인 면담을 통한 니즈분석

고려인 면담자 선정은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부 또는 모를 선정하였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학습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진행되었으며 10명의 면담자를 선정하여 진행되었다. 이들의 국적은 우즈베키스탄 3명, 러시아 4명, 카자흐스탄 3명이며 이들의 체류자격은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F-1)이다. 또한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를 선정하였다.

면담 내용으로 ① 한국어 능력 정도, ② 아산시 거주지 선정 이유, ③ 가족 구성원, ④ 자녀교육, ⑤ 아산시 거주의 어려움, ⑥ 아산시 체류를 위한 본인의 노력 정도, ⑦ 아산시에서 안정적 체류 시 필요 사항 등으로 면담이 진행되었다.

면담 결과 ① 한국어 능력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7명, 일반적 의사소통 가능자가 3명으로 나타났으며 ② 아산시 거주 선정은 최초 한국 입국 시 아산시에서 체류했기 때문이며 재입국 시 아산시에서의 삶을 선택하였고 아산시 체류 연고자에 의한 이주가 이루어졌다. ③ 가족 구성원은 3대의 가족 구성원이 2명이고 모두 핵가족의 형태로 부부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 ④ 자녀 교육 참여는 함께 책을 읽을 정도의 소통이 가능한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본국의 언어로 일상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다. ⑤ 거주 생활의 어려움으로는 주로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월세로 원룸에 거주하고 있어 자녀에게 방을 따로 주지 못하고 작은 방에서 함께 생활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⑥ 아산시에서 지속 체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으로 아산시에서 지속 거주를 원하며 한국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경제활동으로 주중에 진행되는 교육기관에 참여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나타났다. ⑦ 아산시에서 안정적 체류 시 필요 사항으로 면담자 모두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이해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면담을 통해 바라본 아산시 체류 고려인의 삶을 살펴본 결과 아산시 체류 고려인은 아산시에서 지속적인 체류를 원하고 있었으나 삶을 위한 노력은 부족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황을 바탕으로 아산시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 청년의 안정적 삶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아산시 고려인 청년의 안정적 정착 지원 마련

아산시 고려인 청년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착 지원이 요구된다.

첫째, 고려인 청년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참여 확대이다. 재외동포인 고려인이 한국에 입국할 때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을 입증하지 않아도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산시에 거주지 등록을 한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정 및 시설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주중에 경제활동으로 교육 참여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어 고려인 집중 거주지인 신창면과 둔포면에 이들을 위한 교육시설 확대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참여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고려인 자녀의 보육 및 교육에 적극적인 참여이다. 고려인 청년의 유입 증가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자녀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려인 자녀의 보육 및 한국어 교육 강화로 또래관계 형성 및 학교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지원이 요구된다. 고려인 자녀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한국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가정에서는 본국의 언어로 생활하고 있어 한국어 능력 향상에 부족함이 나타난다. 이를 위해 부모가 자녀 보육 및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과 가족센터 등에서 외국인 지원사업의 확대 중 하나로 외국인 자녀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내·외국인 연계프로그램 제공이다. 가족 단위의 고려인을 위한 한국문화 이해 교육 확대로 내국인과의 교류 활동이 요구된다. 내·외국인의 문화교류 활동 강화로 서로에 대한 문화이해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아산시 주최행사에 외국인 주민도 함께 참여하여 외국인 정책 구성에 있어 참여 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려인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고려인의 문화 체험 확대를 통해 내국인의 참여가 고려인 문화를 이해하고 아산시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아산시에 거주지 등록을 한 고려인 청년을 위한 복지지원 마련이다. 고려인 청년의 가족 형태, 체류 기간, 한국어 능력 정도에 따라 복지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아산시의 체류와 함께 안정적인 체류를 할 수 있는 복지지원 등을 통해 고려인 청년이 아산시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하다.

충남 지역별 과학기술 현황 조사 및 발전방향 발굴 : 혁신역량 중심으로

김준혁 |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 전문연구원

혁신역량이란?

혁신역량이란 혁신적인 기술을 장기적으로 창출, 사업화하는 능력으로써, 양적지표로는 R&D 투자, 인프라, 인력의 분포를 의미한다. 주요연구내용으로는 국내외 정책, 산업 동향, 시·군별 동향(제조업, 성장전략, 협업구조 등), 과학기술 혁신자원(논문/특허 등)의 분포(산업/지역별) 및 변화, 시·군별 특화분야 및 시사점 도출이며, 도내 지역·산업별 격차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 수립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을 목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혁신역량 분석의 중요성

지역혁신체제론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게 됨에 따라 기술과 산업, 지역 정책을 통합한 혁신클러스터 정책이 추진되어 오고 있지만, 중앙과 지방 사이의 경제적·심리적 격차가 커진 상황이다. 이러한 실패의 원인은 상당 부분 현재 성장 전략이 지역의 축적 역량을 고려하지 않아 효과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충남도 또한 혁신역량이 천안시·아산시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시·군별 제조업 1위 기업 업종(천안 : 반도체, 예산 : 냉동장비, 부여군 : 제약, 논산 : 금속제조) 등이 상이한 등 지역별 특화·협업 구조가 부재한 상황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역은 고유의 자산, 지식기반, 기술 분야를 바탕으로 기존 활동과 밀접한 분야로 특화, 발전할 때 발전의 가능성과 파급효과가 높다. 또한 신산업 또한 지역 내 기술 관련성이 높고 기술전달(spill-over)이 활발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역의 고유 역량을 파악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육성 분야와 성장

전략을 발굴하는 연관 다각화 기반 클러스터 정책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U는 연관 다각화 개념에 기반한 장소 기반 지역혁신정책인 스마트 전문화 전략(Smart Specialization Strategy) 추진으로 동유럽 등 역내 저개발 지역의 발전에 큰 효과를 보는 중이다.

이러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데이터 기반 분석이 필수적이다. EU에서도 스마트 전문화 전략 관련 정책 프레임워크 연구가 활발함에도 EU의 지방 정부들이 기술 영역 발굴을 위한 분석 전문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착근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량 분석은 기존 전문가 기반의 기술예측보다 정확성이 훨씬 높다. 295건의 기술 예측 사례에 대해서 적용된 예측 기법별로 성공률을 측정한 연구에 따르면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인 방법은 '계량적 트렌드 분석기법'으로 성공률 64.3%, 실현율 67.9%이며 전문가 동원(sourcing) 기법은 성공률 38.3%, 실현율 75.7%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제3차 기술예측조사(2004년 발표)에서 2017년까지 실현될 것으로 예측된 610개 기술을 대상으로 실현율을 조사해 보면 실현율은 일부 실현을 비포함한 경우에는 19.5%(국내), 36.4%(세계)이며, 일부 실현을 포함할 경우에는 76.7%(국내), 86.4%(해외)로 나타났다.

그동안에는 충남의 혁신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정량 분석이 부재하여 지역의 역할에 맞는 고유의 성장산업을 정확히 발굴하지 못하고 시·군별로 유사한 성장전략을 구사해 왔다. 차별성 없는 정책에다 인력과 자본이 넘치는 수도권의 성장 동력이 더 유리하다는 상황까지 겹쳐서 수도권과 충남 간 격차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내 혁신역량 분석을 통해 충남의 혁신역량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를 거듭하여,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충남 권역별 성장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충청남도 혁신역량 분석 현황

· 정책

글로벌 동향, 국내 동향, 시군별 정책동향을 분석한 결과 R&D의 전략성 강화, 산업계 협업 강화 및 전문가풀 확대, 전략적 협업구조 발굴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R&D

최근 5년간 충남에서 수행한 국가R&D는 12,258건이며, 총 연구비는 27,808억원이었다. 국가 R&D는 상대적으로 일정하지만 균특회계·R&D인프라·실증 관련 예산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 논문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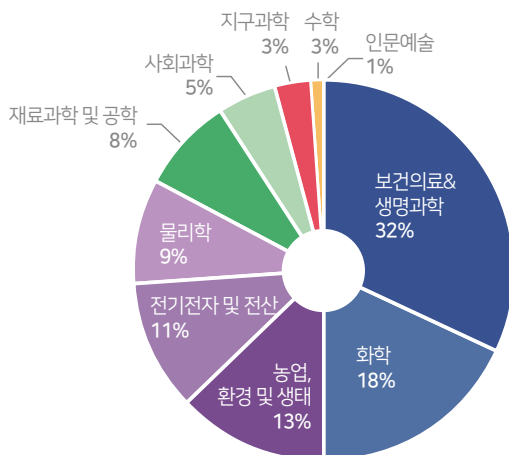
최근 5년간 충남에서 출간된 SCI 논문은 양적으로는 전국 논문의 5.2%를 차지하여 인구비중 대비 높은 성과를 보이지만 질적으로는 전국 평균 대비 미흡하였다.

- 충남에서 가장 논문을 많이 작성한 기관은 순천향대학교, 단국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순으로 전국 기준 4~50위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 CNCI(분야별로 인용도를 정규화하여 통합한 인용도로, 전 세계 평균이 1)의 경우 우리나라 평균은 1.08로 전세계 대비 우수하지만, 충남은 0.78로 크게 열위하였다.
- 국제협력 논문(논문에 외국 국적의 저자가 포함) 비중은 전국은 31.45%이지만 충남은 21.37%에 그쳤으며, 상위 1%, 10% 피인용 논문의 비중도 충남은 각각 0.66%, 7.16%로 1.32%, 10.29%인 전국 평균 대비 부족하였다.

· 분야별 논문 분포

보건의료 분야의 축적량이 32.2%(5,034개)로 가장 많으며, 화학, 농업·환경·생태, 전기전산의 순으로 나타났다.

- 추격연구: 전반적으로 재료과학 및 공학, 생명과학에서 선도지역에 대한 추격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순수과학 및 인문예술학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화분야: 중·소분류 기준으로 식물항암제, 금속공학, 나노입자 등 분야의 인용 도가 세계·국내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분야(대분류)	축적량	백분율
보건의료&생명과학	5,034	32.2%
화학	2,729	17.4%
농업, 환경 및 생태	2,024	12.9%
전기전자 및 전산	1,758	11.2%
물리학	1,367	8.7%
재료과학 및 공학	1,233	7.9%
사회과학	827	5.3%
지구과학	436	2.8%
수학	212	1.4%
인문예술	21	0.1%
	15,641	100%

<표 1> 분야(대분류)별 논문 축적량

· 산업구조

기업 매출 총계('22)는 석유화학·정유 산업이 밀집한 서산시가 1위(73.9조원)였으며 천안(44.3조), 아산(31.7조), 당진(16.5조) 순으로 나타났다.. 대·중·소기업 매출액 비중은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 석유화학·정유사 공장(서산), 발전소(보령·태안)이 위치한 시·군에서 대기업의 매출액 비중이 8~90% 수준으로 나타났다.
- 중기업의 비중은 천안(67.1%), 아산(71.4%), 당진(63.8%) 소기업의 비중은 금산(52.2%), 청양(48.7%) 등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 제조업 비중

충남 전체 산업 매출 중 제조업의 비중은 71.8%이며 시군별 제조업 비중은 태안(1.5%)~서산(95.5%) 사이에 분포하였다.

- 서산, 예산, 천안, 아산에서 제조업 비중이 도 평균을 상회하였으며 공주, 보령, 태안 등에서 발전소, 대기업(애틀미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 특허

최근 5년('18-'22)간 충남에서 공개·등록된 특허는 44,541건이며 반도체의 비중이 높았고, 주요 출원인은 세메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코웨이 순으로 나타났다.

코드	분야	건수	코드	분야	건수
H01L	반도체 장치	6,845	G01N	재료 조사·분석	1,314
A61K	의약품	1,844	G06F	전산	1,054
B01D	물질 분리	1,662	H01M	배터리	998
A23L	식품	1,545	A61Q	화장품 및 유사 화장품 제제	980
G06Q	데이터 처리시스템	1,415	G01R	전기 측정	945

<표 2> 분야(대분류)별 특허 수

· 이노비즈

충남 내 5인 이상 사업장 6,554개 중 이노비즈 인증기업은 572개였으며, 천안(221개), 아산(148개)에 주로 분포하였고 연구개발비 비중 또한 아산(2.4%), 천안(1.87%) 기업이 높았다.

기관명	건수	주요분야
세메스 주식회사	4,517	반도체 장치, 전자관, 전기 측정 등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198	반도체 장치, 재료 조사·분석, 배터리 등
코웨이 주식회사	1,611	물질 분리, 공기조화, 필터, 제빙 등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163	데이터 처리시스템, 식품, 반도체 장치 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42	메니플레이터(manipulater), 전산 등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1,018	의약품, 재료 조사·분석 등
단국대학교(천안) 산학협력단	850	의약품, 미생물 측정, 효소 등
현대트랜시스 주식회사	766	전동장치, 차량 좌석 등
한국자동차연구원	705	전기차 추진장치, 배터리 등
덕산네오룩스 주식회사	680	화합물, 반도체 장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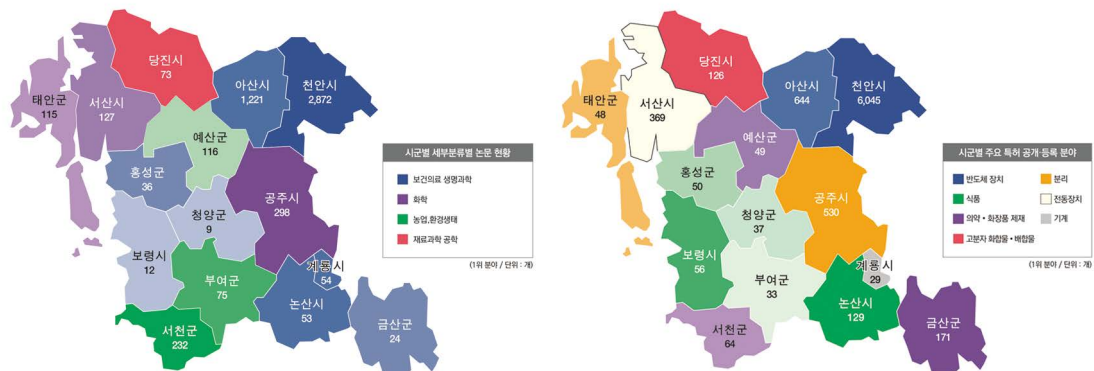
<표 3> 충남 주요 특허 출원인

· 시·군별 논문·특허

논문의 경우 천안·아산·논산·홍성 등은 의료·바이오 분야의 비중이 높았으며 공주·서산·태안 등은 화학, 부여·서천·예산 등은 농업 분야로 특화하였다. 특허의 경우 천안·아산은 반도체, 서천·계룡 등은 의약제재 분야로 특화하였다.

혁신역량 활용 및 기대효과

그동안 충남의 과학기술 전략은 통계적인 근거 하에 수립되어 오지 못했다. 충남 대상 정책들도 대부분 KISTEP,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전국 단위 통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충남 고유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재하였기에, 충남의 자체적인 혁신정책 수립이 어려워지고, 과학기술이 충남 도정의 정책 의제로 자주 등장하지 못하였다. 충남연구원에서 시·군별 산업특화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논문·특허 등 혁신역량을 다룬 바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시·군별 혁신역량(논문·특허·과제 등)을 조사함으로써 충남 도정 차원의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였다. 향후 본 연구를 데이터 기반 시·군별 상향식 연구주제 발굴과 권역별 충남 혁신전략 수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열린 마당



소도시 시민단체의 시민운동 활로 개척에 대한 제언
: 모두다느린학습자성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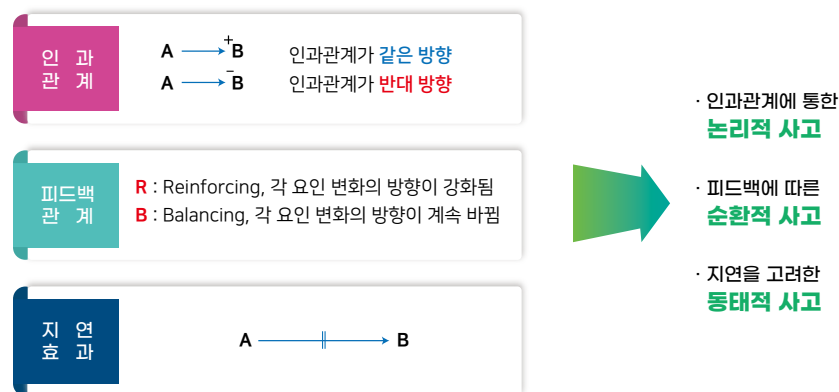
소도시 시민단체의 시민운동 활로 개척에 대한 제언

: 모두다느린학습자성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정재영 | 홍성YMCA 사무총장

해당 주제를 진행하기 위해 '시스템사고'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사고 인과 분석지도'를 이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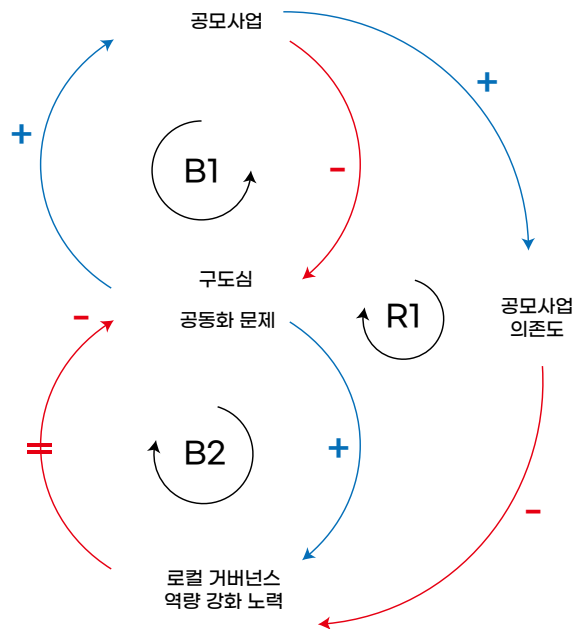
시스템사고의 핵심 개념은 복잡계에서 시작한다. 일련의 상황을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상황의 '복잡계'를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구조를 분석한다. 이때 '상호작용'과 '지연 효과'가 모여 '피드백'이 생기기고 이를 통해 '시간에 따른 변화'와 '지렛대 효과(지렛대)' 등을 예측한다. 이때 레버리지는 '정책저항'이 어디서 오고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방향성을 지닌다.



[그림1] 시스템사고 인과 분석지도의 구성요소

인과지도에서 -가 있으면 A가 강화될수록 B가 약화하거나 A가 약화할수록 B가 강화된다는 뜻이고, +는 A가 강화될수록 B도 강화되고 A가 약화할수록 B도 약화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표시는 효과가 지연된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음식 섭취+ 가 포만감이라고 했을 때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포만감이 상승하게 된다. 반대로 음식을 먹지 않으면 포만감은 없어지게 된다. 소비 -를 통장 잔액이라고 본다면 소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통장 잔액이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소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통장 잔액이 늘어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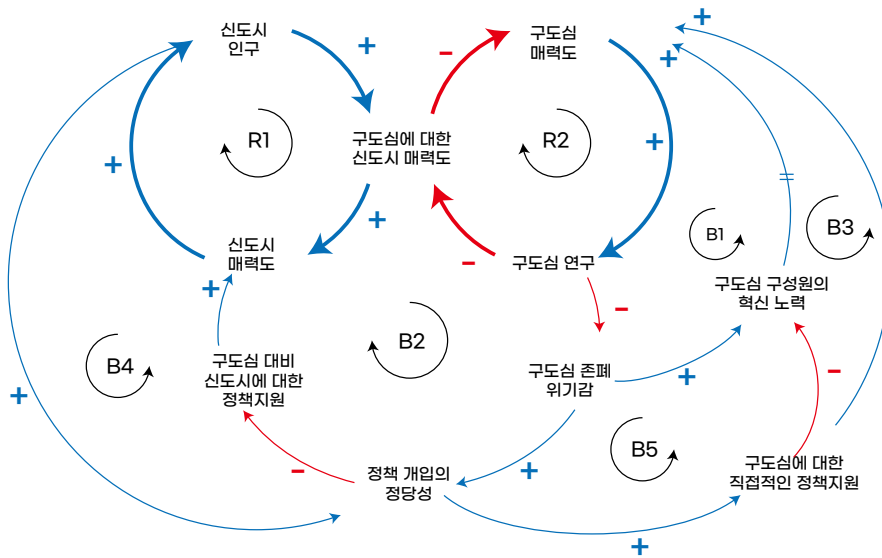


[그림2] 공모사업 의존도 강화에 따른 정책저항 구조

시스템사고 인과 분석지도는 루프를 중심으로 설명되는데, 루프는 진행 방향에 따라 Balance(B), Reinforcing(R)가 있고 [그림2] 인과 분석지도는 어느 지역이나 적용이 될 수 있는 공모사업 의존도 강화에 따른 정책저항 구조이며, B1, B2, R1 순서로 설명할 수 있다.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혹은 마을공동체에서 자금이 부족하므로 공모사업 혹은 지원사업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구도심 공동화 문제가 대두 될수록 공모사업을 더욱 많이 신청하게 된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구도심 공동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B2로 넘어가면 로컬 거버넌스의 역량이 강화될수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구도심 문제가 대두되면 대두될수록 로컬 거버넌스의 역량 강화 노력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문제는 R1이다. 공모사업을 할수록 공모사업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공모사업의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로컬 거버넌스 자체의 역량 강화 노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공모사업 의존도가 높을수록 로컬 거버넌스 자체의 강화 노력이 축소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공모사업으로만 사업을 진행하면 공모사업에



[그림3] 구도심 공동화 대한 정책저항 구조

역지로 자기 단체의 모습을 옥여넣어 본래 정체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공모사업을 진행하되 공모사업을 자본금 삼아 독립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은 유효할 수 있다.

이런 구조 안에서 홍성지역은 내포신도시라는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짐에 따라 다른 인구소멸지역 소도시와는 다른 구조를 가진다.

[그림3]을 보면 신도시가 생기면 구도심의 매력도가 낮아지고 연쇄적으로 구도심의 인구가 감소한다. 그로 인해 구도심의 존재 위기감이 커지고 구도심 구성원들이 혁신 하기 위한 노력도 많아진다.

그런데 B1처럼 혁신 노력의 성과가 지연되기 때문에 B5처럼 구도심에 대한 정책개입이 진행되는데, 정책개입이 강화될수록 구도심 구성원의 혁신 노력이 줄어들게 된다고 분석한다. 다시 말해서 구도심이 진행되면 주민 스스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데 바로 성과가 나오지 않고 그사이 국가가 정책지원 하면서 구도심 주민 자체의 노력이 사라진다.

앞선 두 가지 인과 지도를 보면 홍성에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지속 가능한 운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렛대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내포신도시는 인구 10만 신도시로서의 도시계획이 조성 후 10년간 달성하지 못했고, 홍성군 원도심은 내포신도시로 인해 공동화가 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 인구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구가 분산되어 지역 전체의 역량이 저하된 상태이다. 그래서 주민들의 자발적 쇄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주민들의 자발적 쇄신의 노력은 지속적인 역량이 없으므로 지속해서 지원해줄 구심점 즉 시민단체가 필요하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측면에서 보면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후원 시장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서 새로운 활로 개척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민단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 어떻게 지속 가능한 활동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을 고민하게 되었고 모두다느린학습자성장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최근 낮은 지능지수 때문에 학습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때에 따라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느린학습자 또는 경계선 지능인이 주목받고 있다. IQ가 70~85 사이에 해당하고 전체 인구의 약 13.59% 정도의 인구분포를 보이는 이들을 '경계선지능을 가진 느린학습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느린학습자란,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으로서 학습장애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지적장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계선을 의미하고 있다.¹⁾

경계선 지능과 느린학습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혼동되는 용어이며, 엄밀히 따지자면 경계선 지능이 느린학습자라는 큰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느린 학습자는 경계선 지능뿐만 아니라 또래 혹은 가지고 있는 지능에 비해 문해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 전체를 의미한다.

일부 학자 중에는 느린학습자를 경계선 지적장애로 칭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장애라는 개념보다는 기능상의 어려움에 초점을 두어 경계성 지적기능을 가진 아동으로도 명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느린학습자는 전국에 걸쳐 약 80만 명으로 학령기 학생 중 한 학급당 3명꼴이며, 전체 인구의 13.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느린 학습자 아동과 청소년은 사회기술, 언어, 학습, 신체운동 등 전반적인 발달 영역에서 일반 아동보다 기능이 저하될 뿐 아니라, 우울감, 주의력 집중의 어려움이 동반되는 경향이 있다. 현재 느린학습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3.59%로 추정되며 전체 인구의 5.1%인 등록 장애인의 3배에 가까운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적·교육적으로 충분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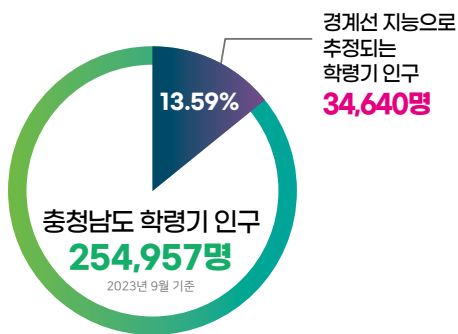
또한 판단력과 분별력, 암기력, 인지력 등이 일반인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며,

1) 경계선 지적기능(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BIF)에 대한 개념은 합의된 용어가 없이 '경계선급 지능', '학습지진', '느린 학습자', '저성취자'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지능검사 결과 경계선에 속하는 지적 기능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적 기능', '정신지체는 아니지만, 장애와 정상 사이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지적 기능'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출처: 김태은(2020), 『느린 학습자 선별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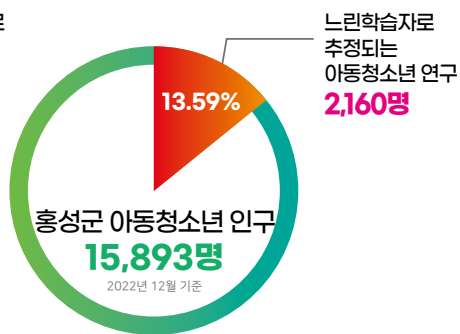
청소년기 학습 능력 부진, 상황판단 능력 부족, 대인기피, 우울증, 불안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이처럼 경계성지능장애의 특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건이 증가 추세로 다양한 사회문제화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황 및 실태 파악도 안 되는 정책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느린학습자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지역에 필요한 이유는 느린학습자가 농어촌, 한부모, 저소득, 다문화 가정에 많이 나타나며, 느린학습자 교육 및 치료시설이 부족한 충남 중남부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충남 중남부에서도 학령인구가 가장 많은 홍성군이 느린학습자를 위한 지원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다.

느린학습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령기 인구 학업성취



[그림4] 충청남도 느린학습자 추정 학령기 인구수



[그림5] 홍성군 느린학습자 추정 학령기 인구수

기관명	초등학교 수 (학생 수)	중학교 수 (학생 수)	총 학교 수 (총 학생 수)	느린학습자 추정 인원(13.59%)
청양	12교 (855명)	5교 (599명)	17교 (1,454명)	약 197명
공주	28교 (3,779명)	14교 (2,064명)	42교 (5,843명)	약 794명
논산	36교 (7,655명)	17교 (4,383명)	53교 (12,038명)	약 1,635명
총수	76교 (12,289명)	36교 (7,046명)	112교 (19,335명)	약 2,627명

[표1] 충남 중남부 주요 도시 학령기 느린학습자 예상 현황

붕괴로 대두되었으며, 이때의 경험으로 인해 학습저조자와 느린학습자는 현상이 비슷하더라도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지하게 되었다. 아직 사회적 인식이 저조하여 느린학습자 대상 사업은 수도권 중심의 사업이 대부분이고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이지만 아직 본 회계에 적용된 본격적인 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충남 중남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개척되어야 시민 사업 분야이며 교육사업시장인 것이다.

느린학습자에 관한 관심이 팬데믹 이후 가속화되고 있지만 덧붙여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역 유지의 지속가능성 문제와도 결부된다. 출산율이 0.70%로 인류소멸의 위기에 있는 현시점에서 13.59%는 매우 유의미한 숫자이다. 초기발견과 개입을 통해 온전한 성인기 전환이 가능한 느린학습자는 지역의 소중한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홍성YMCA는 느린학습자성장지원사업을 위해 2023년 5월 8일 모두다느린학습자 성장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전문적인 생애주기별 느린학습자 성장지원사업과 자조 모임 지원, 실태조사와 같은 인식개선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느린학습자 성장지원을 위해 문해력(인지훈련, 글자해독, 문해력 등)과 사회성교육(일반사회, 연극교육, 애니메이션 더빙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학령기를 지내면서 발생한 반복된 실패경험으로 인한 낮은 자아존중감을 회복시키기 위한 심리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해당 교육들은 올해 10월에 교육 효과성을 분석 및 증명하여 교육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충청남도 중남부는 느린학습자를 위한 전문기관이 없는 만큼 다양한 국가가 운영하는 복지기관에서 해당 업무를 분산해서 담당하고 있으며, 사례관리를 통해 추적 및 관리를 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개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느린학습자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이 지역마다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장기 방향성이다. 현대의 시민사회는 과거와 비교해 매우 소분화·다원화되어 있다. 시민들의 욕구가 한 곳에 집중되어서 모이지 않고 저마다의 욕구가 사회 전반에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존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생존의 갈림길에 있다. 그러나 사회는 시민들의 욕구 실현이 지속해서 발현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므로 지역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 기존 시민단체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시민단체는 현대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운동성을 요구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홍성YMCA는 지역공동체 역량을 강화를 목적사업으로 삼고 다양한 지역사업을 운영함과 동시에 지역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존재로 성립할 수 있는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으로써 느린학습자 성장지원사업을 확장 운영하는 것이다.



‘힘쎈충남’ 버전 II 로 업그레이드할 때다

‘힘센충남’ 버전 II 로 업그레이드할 때다

김기룡 기자 | 신아일보 충남취재본부장·충남기자협회장

내년도 국비 11조 확보를 위해 강행군하고 있는 민선 8기 ‘힘센충남’ 號가 선장 김태흠 지사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 지역 경제·사회·문화 등 각양 각층에서 괄목 성장하며 반환점을 돌고 있다. 특히,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김 지사의 포부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충남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심각하고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는 균형발전과 축소사회 극복을 도정의 주요 섹터로 포함하는 ‘역동 균형’ 또는 ‘포용 성장’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시점이 분명하다. ‘힘센충남’ 버전 II 로 업그레이드할 때라는 것이다.

충남은 현재 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와 지역소멸 등으로 인한 지역 인프라 유지비용 증가와 생산성 하락, 숙련인력 감소에 따른 외국인 고용 증가 등 인구 사회적 변화가 가속되고 있다. 또한 외적으로는 글로벌 차원에서 미중 패권 대결과 공급망 변화, 자유무역 쇠퇴 및 국익 중심 통상 질서로 변화, 중국 하이앤드 성장에 따른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 등이 우려되고 있다.

나아가 환경적으로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으로 인한 글로벌 새로운 규제 등장, RE100 및 ESG 대응 등 국제 규범과 제도 변화로 인한 충남 경제 체질 전반에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기존의 문법으로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과 이슈를 해결하기 어려워, 글로벌 질서 재편 속에 맞이한 축소사회 시대 진입으로 발생하는 이슈를 해결하는 데 도정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힘센 충남 버전 II 는 ‘축소사회에도 우리가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지금 충남이 가진 자원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결정에 대한 도민의 합의와 신뢰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 돼야 한다.

글로벌 차원에서 살펴볼 때 무한 경쟁은 더욱 심화 중이다. 성장도 이루고 균형도 달성하며 지역도 번영하는 해답이 있으면 좋겠지만, 축소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냉정히 인식하고 자원의 최적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축소사회에서도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충남만의 분업 구조를 창조하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확보해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소해야 한다. 부모가 아이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것을 아끼고 교육에 투자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진 자원을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체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결론적으로 축소사회에 따른 공급과 수요 위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노동 숙련도와 인력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이 핵심 아젠다가 돼야 한다. 특히, 균형발전과 저출산 극복이라는 시대적 당위에 이끌려 현재의 자원을 미래 성장의 자원이 아닌 소비성 자원으로 소모하는 선택은 경계해야 한다.

인구-사회학적 변화로 인한 축소사회가 가져오는 문제점들은 창의적 제도와 새로운 상상력으로 접근해 해결하는 과감한 사회적 실험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 과거 새마을운동을 통해 산업화 시대에 필요한 근대적 인간의 탄생을 기획했던 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사회는 가족이 해체되고 오랫동안 혼자 살아가야 하는 핵가족의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보육과 보살핌, 돌봄의 문제는 시장과 국가가 해결할 시급한 문제로 전이된다. 쇠퇴하는 지역에서 혼자 늙어가며 살아가야 하는 시대적 트렌드에 대응해 돌봄과 보살핌이라는 삶의 관계망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로 '힘센충남' 버전 II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

성장 없는 균형은 불가능하고, 균형 없는 성장은 공허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자원을 성장에 집중하고 삶의 원리를 새롭게 기획하는 투트랙 전략이 요구된다. 성장을 바탕으로 균형발전의 가능성을 끈질기게 추구하는 '역동 균형' 또는 균형을 위한 성장인 '포용 성장'의 길을 도민에게 제시하고 모두의 공감을 이끄는 성공 사례를 지속 발견해야 한다.

로컬이
답이다



작아도 많고 이어지면 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적협동조합 온어스'

작아도 많고 이어지면 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적협동조합 온어스’

최낙원 | 사회적협동조합 온어스 대표

Q1 사회적협동조합 온어스(ONUS) 이라는 사명이 지역공동체와 상생, 협력하며 동반 성장하려는 온어스의 행보를 포함한 사명이라고 느껴진다. 온어스의 뜻과 사명으로 정하신 이유가 궁금하다.

온어스’는 아산 지역에서 각기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아산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사업을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경쟁이 아닌 상생과 협력을 택하였으며,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역 기반 코워킹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온어스’라는 이름은 ‘우리 지역에서 함께하자(On+Us)’라는 의미와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들로 구성된 ‘Owners’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온어스를 구성하는 다수의 청년기업 이름이 ‘온’으로 시작해(온도, 온양실험실, 온앤온) 정해졌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Q2 온어스는 도고를 중심으로 도고살이 프로그램 운영, 도너지굴, 도고상사, 카페 영웨이브 등 다양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온어스가 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소개 부탁한다.

온어스는 아산시 도고면을 거점으로 타 지역 청년을 유입시킬 수 있는 지역살이 프로그램과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공간 리노베이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살이 프로그램은 창업, 사진, 영상, 글쓰기 등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청년들이 도고를 경험하고 취향을 기반으로 로컬 콘텐츠를 발굴하고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4년에는 ‘도고 취향살이: 비즈니스편, 사진편, 식물편, 글쓰기편’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공간 리노베이션 사업은 유휴공간을 발굴하고 지역에 필요한 콘텐츠를 입히는 사업’입니다. 코워킹스페이스 ‘도고상사’에는 3개의 청년기업, 구) 보건지소를 리노베이션한 ‘도너지굴’에는 4개의 청년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은 코미디홀 2층 공간은 협동조합 온양실험실과 협력하여

제로웨이스트 카페&샵 '영웨이브'로 재탄생했습니다. 코리빙하우스 '도더지하우스'는 지역살이 참여자 및 마을을 경험하고 싶은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입니다.

Q3 요즘,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추진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매출 등 환류효과 (주변지역 경제효과, 새로운 기반 시설확충 등)에 관심이 많다. 온어스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인해 기존과 비교하여 도고의 환류효과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궁금하다.

현재 온어스는 콘텐츠 기획·운영, 회계, 카페 운영 파트로 구성된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을 준비하며 1명의 추가 고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어스는 코워킹 인프라 문화를 조성하면서 마을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코워킹스페이스(도고상사, 도더지굴), 제로웨이스트 카페&샵(영웨이브), 코리빙하우스 도더지하우스), 마을안내소 (52정거장) 등 5개의 거점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통해 총 7개의 청년 기업, 20명의 청년이 도고로 유입되었습니다. 유입된 청년들은 각자의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로컬 콘텐츠를 제작해 도고 지역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Q4 새로운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온어스를 설립고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처음 도고에 왔을 때,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을 내 공간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과 가까워지고 신뢰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청년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지 묻고, 이방인이 아니라, 도고와 상생하고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까워지기 위해 주민 분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막걸리 등을 대접하며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한 적도 있고요. 주민분들과 어느정도 신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현재는 온어스를 함께 구성하는 동료들과 우리의 사업이 지속 가능한 방법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년마을 3년 차 이후 자립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Q5 온어스를 운영하면서 어렵고 힘든 점도 많았겠지만, 좋았던 기억들이나 뿌듯했던 일도 있었을 것 같다.

온어스 구성원들과 함께한 도고 첫 프로그램 'Do It Together' 한 달살이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역 네트워크를 넘어 하나의 사업 공동체로서 한 달 동안 함께 일하고 쉬며 살아가는 경험이 지금까지 끈끈한 연대를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 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마다 주민들에게 꽃을 선물하며 인사드린 '화요일에 만나요' 프로그램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때부터 연을 맺은 이장님, 부녀회장님, 정육점 사장님 등은 현재 우리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셨습니다.

Q6 다양한 신규사업을 런칭하면서 홍보 및 직원을 뽑고 교육하는 것이 힘들었을 것 같다. 슬기롭게 극복한 대표만의 노하우가 있을까?

직원 채용 시, 회사의 미션과 현실적인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편입니다.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서로 배려해야 할 부분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간의 소통입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 오전에 주간회의를 통해 업무 파악뿐만 아니라 서로 고민하는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이 시간은 좋은 소통 채널이 되고 있습니다.

Q7 앞으로 온어스의 행보 또는 새로 런칭할 사업체 또는 사업이 있다면 소개해달라.

하반기에 마을호텔 형태의 스테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어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 후 이용객들에게 듣는 피드백은 '생각보다 할 것이 많고 자연 풍경이 힐링이 되지만, 다소 낡은 도고의 숙소들이 너무 아쉽다'였습니다. 그렇기에 마을의 빈집을 리노베이션(renovation)하여 숙박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 내 관광지와 크리에이터들의 공간을 연계해 도고만의 특화된 경험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도고라는 곳은 작은 지역이기에 일반적인 경로인 공인중개사나 인터넷 등으로 매물을 알 수 없습니다. 직접 주민들에게 매물을 알아봐야하는데요. 그동안 주민들과 쌓은 신뢰 덕분에 숙박공간을 위한 빈집 확보가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Q8 충청남도의 청년기업인으로서 충청남도 아산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얼마 전 군산에서 지역 자원과 문화를 창의적으로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로컬메이커스페이스 포럼이 열렸습니다. 충남에서도 지역 콘텐츠를 창의적으로 해석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해주시고, 지역 창업자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많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Q9 제2의 온어스를 꿈꾸는 충남의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석 교수님의 '작아도 많고 이어지면 강하고 아름답다'라는 의미의 소다연강미(小多連強美)를 온어스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작은 행동이라도 많이 모여지고 연결된다면 지역의 힘이 커지고 매력적인 지역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으샤으샤 합시다!

온어스의 변창과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고 응원드리며, 짧지 않은 인터뷰 답변 감사합니다.

연구원 소식



안정적인 정주체계 구축 위한 충남형 농촌공간정책 마련해야
교통약자 없는 대중교통서비스 혁신 방안 마련해야
디자인으로 그려가는 도민의 삶...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개최
충남연구원, 금산군과 함께 개원 29주년 행사 가져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정책연구활동 결실 맺어

연구원 소식 01

“안정적인 정주체계 구축 위한 충남형 농촌공간정책 마련해야”

- 충남연구원, 제1회 지역정책세미나 개최...농촌공간 재구조화 논의

농촌인구 과소화에 따른 지속가능성에 위기가 커지면서 농촌커뮤니티 재생정책과 공간정책을 통합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월 4일 충남연구원은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충남의 전략과 방안”을 주제로 제1차 지역정책세미나를 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는 충남도정의 핵심현안을 논의하는 릴레이 세미나로써, 민선 8기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선임연구위원은 “전국의 농촌 마을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고령화와 공동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정주기능 역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3월 시행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과 연계해 추진하되, 시·군별 농촌공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 수립, 중장기적 공간 재편 구상, 현장 공감대 형성, 상시 모니터링 체계 등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연구원 조영재 선임연구위원은 “농촌공간에 대한 우려가 가속화되면서 이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농업의 구조조정, 농업경영 형태의 변화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농촌지역의 기존 주민과 새로운 주민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커뮤니티로의 전환 및 확대, 마을 단위 행정구역 개편(통·폐합) 등 농촌공간의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한 정주공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충남도는 농촌주거공간개선사업의 일환인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을 비롯한 농촌지역 독거노인 등을 위한 주거복지 차원의 ‘충남형 공동생활홈(실버홈)’, 주민 주도의 단계별 마을을 육성하는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등의 농촌공간·재생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앞으로 충남도는 기존 정책들을 연계·확장하되, 청년층을 넘어선 중장년층 귀촌정책 등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농촌공간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농촌정주체계 구축 및 서비스 기반 확충, 지역단위의 새로운 커뮤니티 육성 등을 통합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 시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한민 사무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엄성준 팀장, 지역활성화센터 오형은 대표, 충남도 이혁세 농촌활력과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충남의 전략을 논의했다.

한편, 충남연구원은 6월 11일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충남의 탈플라스틱 전략’을 주제로 제2차 지역정책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구원 소식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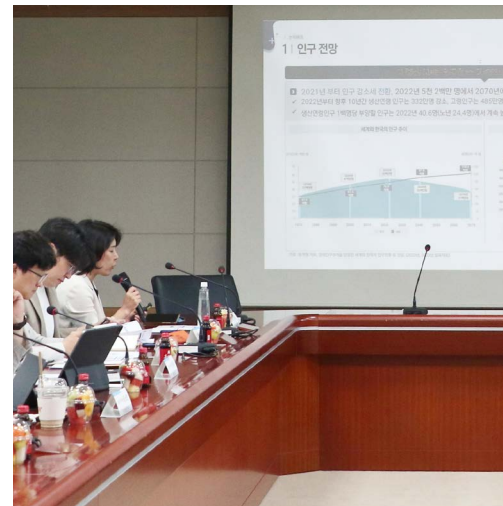
“교통약자 없는 대중교통서비스 혁신 방안 마련해야”

- 5일, 충남연구원 & 한국교통연구원 공동 정책세미나 개최

농어촌 등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6월 5일 충남연구원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인구감소시대 지방 중소도시 모빌리티 혁신방안 정책세미나’를 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한국교통연구원 임서현 연구위원은 “지방 중소도시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교통이용 수요 감소, 운수종사자 고령화 등 버스 운영 현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도시 대중교통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버스 운영 합리화, △노선버스와 수요응답교통의 통합 운영체계 기반 마련, △지역 특화 모빌리티 실증사업 확대 등은 물론 효율적 운영 구조 개선시 지자체 및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교통연구원 탁세현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공공형 택시·버스 운영, 노선 개편을 통한 운영 효율화, 노선버스의 DRT(수요응답형버스)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별 현황 분석 등 보다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충남도 5개 시·군(보령, 금산, 서천, 청양, 태안)을 대상으로 공공교통서비스 적정성 평가 연구를 수행한 결과, 교통서비스 이용 수요에 기반해서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은 노선버스 운영을, 인구 감소·고령화 등으로 이용 수요가 과소한 지역은 공공형 버스·택시와 같이 유동적 운행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교통수요, 지역 특성, 교통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수요기반 공공교통 적합성 평가를 실시해 노선 개편이나 신규 교통서비스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충남연구원 김원철 연구위원은 “현재 충남도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소형버스나 택시를 활용한 수요응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자를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일본이 ‘ラスト 마일’(last-mile, 자가용 및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중인 저탄소형 교통정책(그린 슬로 모빌리티, Green Slow Mobility)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 시간에는 대전세종연구원 이정범 박사, 충북연구원 정용일 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윤소연 박사, 충남도 교통정책팀 한경아 사무관과 대중교통팀 박지훈 사무관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정책 마련 전략을 논의했다.



연구원 소식 03

디자인으로 그려가는 도민의 삶...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개최

- 최종 선정된 아산, 논산, 당진, 홍성 등 4개 시군 순회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는 이번 6월부터 3개월간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아카데미’를 추진한다고 6월 4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충남도민의 공공디자인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로 15년째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국가 및 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하였고, 지역주민과 지자체는 물론 한국공공디자인학회 등 전문기관이 함께 지역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디자인 솔루션과 개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오병찬 공공디자인센터장은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도내 4개 지자체(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홍성군)가 선정되었고, 오는 8월까지 아카데미가 추진될 예정”이라며, “이번 공공디자인 아카데미에서 수행된 결과물은 향후 국가와 충청남도에서 추진되는 공모사업의 현장 중심형 디자인 전략 방안으로 적극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 소식 04

충남연구원, 금산군과 함께 개원 29주년 행사 가져

충남연구원이 6월 14일 금산군과 함께 개원 29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충남연구원은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에서 박범인 금산군수, 박지흥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그리고 연구원 임직원 12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기념행사를 갖고 화합을 다졌다.

이 자리에서 장기근속자 기념패(이상준 연구위원 외 6명)와 대통령 포장(오혜정 선임연구위원)이 전달 되었고, 이어 이철성 전.건양대 총장을 초청해 '인삼 역사'를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이어 금산인삼관 및 금산인삼시장, 월영산 등을 둘러보며 금산군의 진면목을 몸소 체험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충남연구원은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원장 박지흥)과 협약을 맺고 금산인삼약초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분야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약속했다.

박범인 군수는 "충남연구원 개원기념행사로 '생명의 고장' 금산을 찾아줘서 감사하다"라며 "연구원은 금산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인 만큼 충남도 및 시·군의 동반성장을 위한 좋은 정책연구를 계속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연구원 오용준 기획경영실장은 "충남연구원은 지난 29년 동안 도와 시·군의 중장기 발전과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 더욱 성숙한 조직문화와 협력체계에 기반하여 연구역량을 강화해 충남도와 시·군의 정책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연구원 소식 05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정책연구활동 결실 맺어

홍성군 ‘2024년 대한민국 국토대전’ 국무총리상 수상에도 한몫

올해로 개소한 지 15년이 된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가 공공디자인 정책연구활동의 결실을 맺고 있어 화제다. 최근 충남 홍성군이 ‘2024년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경관행정 부문 1위를 달성해 국무총리상을 받는데 한몫을 담당했던 것.

오병찬 센터장은 “올해 16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품격 있는 국토, 아름다운 경관’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우리나라 국토, 도시, 경관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국무총리상을 받은 홍성군 고미당마을은 ‘2020년 충청남도 경관협정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3년에 걸쳐 경관협정 체결 및 마을 중장기 경관계획 수립, 주민 경관관리단 운영 등 관 주도의 사업이 아닌 주민 주도로 추진된 ‘농촌형 경관사업 모델’을 제시하며 심사 과정에서 높이 평가 받았다.

일련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디자인센터 박혜은 박사를 중심으로 ‘충청남도 농촌경관협정 추진방안(2017)’ 연구를 수행했고, 이후 충남도가 홍성군 고미당마을을 시범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한 사업이다. 그리고 ‘충청남도 경관협정 시범사업 추진 개선방안(2021)’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업 PM, 디자인관리 자문단 운영 등을 계속적으로 지원한 사례이다.

또한,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는 △아산시 은행나무길, 논산시 돈암서원 주변 등 지역의 경관개선 및 명소화 사업, △당진시 서문리, 공주시 중동 등 범죄예방 환경설계, △청양군 관광브랜드, 충청남도 CI 개발 등 브랜드 디자인을 비롯한 컨설팅, △공공건축 품질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충남의 경관 및 디자인 관리를 위한 정책지원을 수행해 왔다.

오 센터장은 “올해 센터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연구와 현안과제 등은 물론, 시·군별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디자인 컨설팅 100여 건,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70여 건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충남의 여건을 반영한 현장 중심형·생활 밀착형 공공디자인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구원 발간물

충남 리포트 플러스



일터+쉼터,
두 마리 토끼잡는 충남 워케이션 활성화 전략
박종섭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목소리 책임연구원 연구원



충남 농촌소멸 대응, 농촌지역 거점마을 육성 필요
조영재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인포 그래픽



전국최초 해양쓰레기 분포지도 제작을 통한
충남의 해양쓰레기 제로화 : 한걸음 더 앞으로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윤종주 센터장
이상우 연구원·송혜영 연구원



온라인거래 활성화가 충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강수현 연구원·신동호 선임연구위원

정책 지도



마을소멸지수를 적용한
농촌마을(행정리) 소멸 실태 및 정책과제
윤정미 선임연구위원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비 위축과 관광객 유치의
상쇄 효과
한석호 초빙책임연구원·김보람 연구원



QR코드를 스캔하면 YouTube채널로 연결됩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CNI 정책연구 플랫폼 채널로 연결됩니다.

열린충남

THE CHUNGNAM INSTITUTE

충남연구원은 도민의 더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역사와 전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앞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풍요롭고 건강한 정신으로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충남도민의 모습입니다.

희망찬 충남의 미래를
충남연구원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우) 32589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 (금흥동)
TEL 041-840-1114 FAX 041-840-1129 <http://www.cni.re.kr>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작은 실천”
본 인쇄물은 재활용 가능한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